## MBC 飛

# 2025년 신년 특집 정치·사회현안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2024. 12. 31.



#### 일러두기

- 본 조사의 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복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척도형 문항(예: 매우 + 다소)의 두 개 응답을 합산하여 제시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합산하여 반올림하였으므로 척도의 단순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언론 공표 혹은 인용 시에는 조사개요를 참고하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 보도지침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장. 조사의 개요

I . 조사의 목적	6
Ⅱ. 조사 설계	7
Ⅲ. 조사 내용	8
Ⅳ. 표본의 특성	9
2장. 조사 결과 분석	
I . 정당 및 차기 대선후보	
1. <b>정당지지도</b>	11
2. <b>차기 대선후보 선호도</b>	12
Ⅱ . 각종 현안	13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13
2. 최상목 경제부총리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전망	14
3. <b>내란죄 관련 의견</b>	15
4. 부정선거 관련 의견	16
5. <b>공수본 역할에 대한 의견</b>	17

## 목차

6. <b>헌재 탄핵 심판 의견</b>	18
7. 헌재 탄핵 심판 전망	19
8. <b>헌재 심판 일정</b>	20
9. <b>조기 대선 관련 의견</b>	21
10. <b>정치경제적 위기 관련 평가</b>	22
11. <b>내년 경제 전망</b>	23
12. <b>경제 회복 시기</b>	24

# 1장

# 조사의 개요

- I. 조사의 목적
- Ⅱ. 조사 설계
- Ⅲ. 조사 내용
- IV. 표본의 특성

## Ⅰ. 조사의 목적

#### 본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주요 정치·사회현안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여 MBC 보도용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조사의 목적 및 기대효과를 흐름도(Flow-Chart)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 수집자료

- 정당 및 차기 대선 후보
- 각종 현안

•

기대효과

전반적인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파악

보도 자료로 활용

## Ⅱ. 조사 설계

### **2025년 신년 특집 정치·사회 여론조사** (2024. 12. 31.)

조사 의뢰자	MBC
조사 기관	(취)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 지역	전국
조사 기간	2024년 12월 29일 ~ 12월 30일(2일간)
조사 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 방법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표본 크기	<b>1,003명</b> (가중값 적용 사례수: 1,003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성/연령/지역별로 피조사자를 할당
응답률	16.2%(총 6,188명과 통화하여 그 중 1,003명이 응답 완료)
 가중치값 산출 및 적용방법	-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
	(2024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 Ⅲ. 조사 내용

### **2025년 신년 특집 정치·사회 여론조사** (2024. 12. 31.)

정당 및 차기 대선 후보	• 정당지지도
	•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각종 현안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 최상목 경제부총리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전망
	• 내란죄 관련 의견
	• 부정선거 관련 의견
	• 공수본 역할에 대한 의견
	• 헌재 탄핵 심판 의견
	• 헌재 탄핵 심판 전망
	• 헌재 심판 일정
	• 조기 대선 관련 의견
	• 정치경제적 위기 관련 평가
	• 내년 경제 전망
	• 경제 회복 시기

## Ⅳ. 표본의 <del>특</del>성

구분		실제조사 사례수	%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	%
	전체	(1,003)	100	(1,003)	100
서남	남성	(515)	51	(501)	50
성별	여성	(488)	49	(502)	50
	18세-29세	(148)	15	(158)	16
	30대	(146)	15	(151)	15
연령	40대	(173)	17	(174)	17
110	50대	(197)	20	(197)	20
	60대	(178)	18	(174)	17
	70세 이상	(161)	16	(149)	15
	서울	(197)	20	(185)	18
	인천/경기	(330)	33	(326)	33
	대전/충청(세종)	(102)	10	(106)	11
지역	광주/전라	(99)	10	(99)	10
	대구/경북	(91)	9	(97)	10
	부산/울산/경남	(145)	14	(149)	15
	강원/제주	(39)	4	(41)	4

# 2장 **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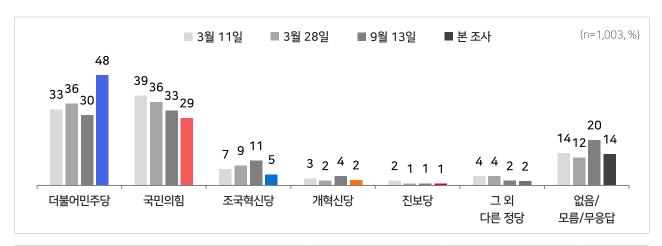
- I . 정당 및 차기 대선후보
- Ⅱ. 각종 현안

## Ⅰ. 정당 및 차기 대선후보

#### 1. 정당지지도

**문1**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순서는 무작위순입니다. **문1-1**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생각되는 정당은요? 보기는 이전에 불러드린 순서와 동일합니다.

-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민의힘' 29%,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2%, '진보당' 1%순임('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 14%).
  - ☞ 지난 9월 13일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은 18%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4%p, '조국혁신당'은 6%p 감소함.
  - ☞ 지난 3월 11일 조사 이후 '국민의힘' 지지도는 하락하는 추세임.
- ✓ '더불어민주당'은 40대(69%), 광주/전라(65%), 화이트칼라(57%), 진보 성향층(78%)에서 특히 높았음.
- ✓ '국민의힘'은 70세 이상(55%), 대구/경북(49%), 주부(40%), 보수 성향층(69%)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구분	사례수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그 외 다른 정당	없음/ 모름/무응답
	전체	(1,003)	48	29	5	2	1	2	14
	18세-29세	(148)	45	19	5	4	1	0	27
	30대	(146)	47	23	4	3	2	3	19
어램	40대	(173)	<u>69</u>	16	5	2	1	2	5
연령	50대	(197)	56	22	7	2	1	2	10
	60대	(178)	35	43	4	2	0	2	14
	70세 이상	(161)	31	<u>55</u>	3	1	0	2	8
	서울	(197)	49	29	2	4	2	4	12
	인천/경기	(330)	48	31	3	2	1	1	15
	대전/충청(세종)	(102)	45	29	7	4	0	2	14
지역	광주/전라	(99)	<u>65</u>	8	11	1	1	2	12
	대구/경북	(91)	31	<u>49</u>	3	3	0	3	10
	부산/울산/경남	(145)	45	30	4	1	1	1	18
	강원/제주	(39)	59	20	10	0	0	2	10
	농/임/수산업	(23)	15	49	5	9	0	0	22
	자영업	(164)	47	32	5	2	1	2	11
	블루칼라	(164)	46	28	3	4	0	1	18
직업	화이트칼라	(284)	<u>57</u>	20	6	3	1	2	11
	주부	(177)	45	<u>40</u>	3	1	1	2	8
	학생	(72)	49	15	6	3	1	0	27
	무직/기타	(119)	36	39	4	1	0	4	15
	보수	(309)	18	<u>69</u>	2	3	0	2	7
이념	중도	(356)	50	18	4	3	1	2	23
성향	진보	(282)	<u>78</u>	3	8	1	1	2	6
	모름/무응답	(56)	42	21	4	2	0	0	32

## Ⅰ. 정당 및 차기 대선후보

#### 2.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문2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다음 인물 중에서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는 무작위순입니다.

-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를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가 40%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홍준표' 시장 8%, '한동훈' 전 대표 7%, '오세훈' 시장 5%, '우원식' 국회의장 4% 순으로 나타남('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 22%).
- ☞ 지난 9월 13일 조사 대비, '이재명'은 11%p 증가한 반면, '한동훈'은 11%p 크게 하락함.
- 더불어민주당 지지층(n=469)에서는 '이재명'이 7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국민의힘 지지층(n=299)에서 '한동훈'(20%), '홍준표'(18%), '오세훈'(15%) 순으로 높음.
- ✓ '이재명' 대표는 40대(63%), 광주/전라(60%), 진보 성향층(7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홍준표' 시장은 30대(14%), 대구/경북(16%), 보수 성향층(14%)에서 비교적 높음.
- ✓ '한동훈' 전 대표는 70세 이상(16%), 대전/충청(세종)(10%), 보수 성향층(13%)에서 비교적 높은 편임.



<sup>\*</sup> 우원식은 이번 조사에서 추가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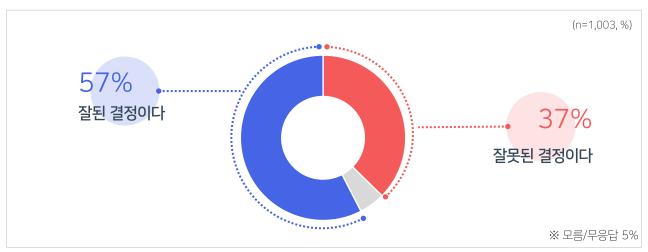
74-	구천국은 이런 조사에서 구기되었음															
	구분	사례수	이재명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우원식	원희룡	김동연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	김부겸	김경수	기타	없음/ 모름/ 무응답
	전체	(1,003)	40	8	7	5	4	3	2	2	2	1	1	0	3	22
	18세-29세	(148)	30	12	2	2	4	1	1	6	2	3	0	0	2	34
	30대	(146)	39	<u>14</u>	4	2	5	1	1	2	3	1	1	0	2	25
연령	40대	(173)	<u>63</u>	4	4	3	5	2	2	1	1	2	1	0	1	11
인당	50대	(197)	49	4	4	5	6	3	3	2	3	2	2	1	4	15
	60대	(178)	26	7	10	11	5	5	5	0	2	1	1	1	4	24
	70세 이상	(161)	27	5	<u>16</u>	11	1	5	3	3	0	1	0	1	3	24
	서울	(197)	39	7	5	9	7	4	2	2	2	2	1	0	2	20
	인천/경기	(330)	41	7	8	6	4	3	3	3	2	2	1	0	3	19
	대전/충청(세종)	(102)	40	6	<u>10</u>	3	4	2	4	2	2	2	1	0	1	23
지역	광주/전라	(99)	<u>60</u>	4	1	0	4	0	4	3	0	2	1	0	1	20
	대구/경북	(91)	23	<u>16</u>	8	10	2	3	0	1	3	0	1	0	5	28
	부산/울산/경남	(145)	35	11	6	4	3	3	2	1	1	2	0	2	4	25
	강원/제주	(39)	46	0	2	2	10	5	2	7	2	0	0	0	0	22
	보수	(309)	14	<u>14</u>	<u>13</u>	12	2	7	1	4	2	1	0	0	6	22
이념	중도	(356)	37	7	5	4	8	2	3	2	3	2	1	0	1	26
성향	진보	(282)	<u>71</u>	1	2	1	3	0	4	1	1	1	1	0	2	13
	모름/무응답	(56)	33	6	8	2	2	0	0	5	0	4	0	0	2	39
지지	더불어민주당	(469)	<u>74</u>	1	0	1	6	0	3	2	1	0	1	0	1	10
	국민의힘	(299)	1	<u>18</u>	<u>20</u>	15	0	8	1	2	0	1	0	0	7	26
정당	조국혁신당	(47)	52	4	2	0	6	0	9	4	0	0	4	2	0	17

문3

####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보기 1-2 로테이션)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서는 '잘된 결정이다' 라는 응답이 57%로, '잘못된 결정이다'라는 응답 37%보다 높음.
- ✓ '잘된 결정이다'는 40대(79%), 광주/전라(73%), 화이트칼라(70%), 진보 성향층(88%)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 '잘못된 결정이다'는 60대 이상(60대 57%, 70세 이상 59%), 대구/경북(60%), 자영업(43%), 주부(44%), 보수 성향층(7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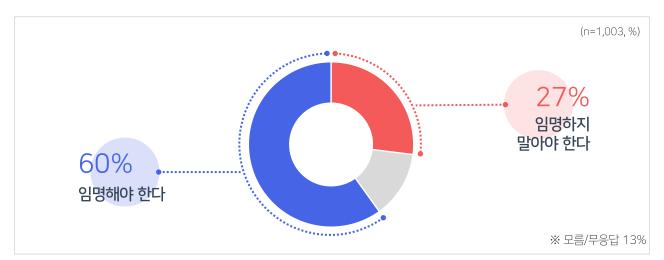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잘된 결정이다	잘 <del>못</del> 된 결정이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3)	57	37	5
	18세-29세	(148)	55	30	15
	30대	(146)	59	33	8
연령	40대	(173)	<u>79</u>	19	2
10	50대	(197)	68	30	2
	60대	(178)	42	<u>57</u>	1
	70세 이상	(161)	33	<u>59</u>	8
	서울	(197)	52	45	3
	인천/경기	(330)	59	36	6
	<b>대전/충청</b> (세종)	(102)	62	33	6
지역	광주/전라	(99)	<u>73</u>	17	10
	대구/경북	(91)	35	<u>60</u>	5
	부산/울산/경남	(145)	58	36	6
	강원/제주	(39)	68	27	5
	농/임/수산업	(23)	23	72	5
	자영업	(164)	55	<u>43</u>	2
	블루칼라	(164)	58	33	9
직업	화이트칼라	(284)	<u>70</u>	27	3
	주부	(177)	50	<u>44</u>	6
	학생	(72)	62	24	15
	무직/기타	(119)	41	53	6
	보수	(309)	27	<u>71</u>	3
이념	중도	(356)	61	33	6
성향	진보	(282)	<u>88</u>	9	3
	모름/무응답	(56)	39	32	30

#### 2. 최상목 경제부총리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전망

문4 선생님께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1-2 로테이션)

- 최상목 경제부총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임명해야 한다' 응답이 60%로,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27%)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 모든 연령대와 모든 지역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음.
  - ☞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이 국회 몫인 만큼 형식적인 절차라는 주장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보임.
- ✓ '임명해야 한다'는 40대(80%), 광주/전라(76%), 화이트칼라(71%), 진보 성향층(8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60대(40%), 대구/경북(41%), 자영업(33%), 보수 성향층(51%)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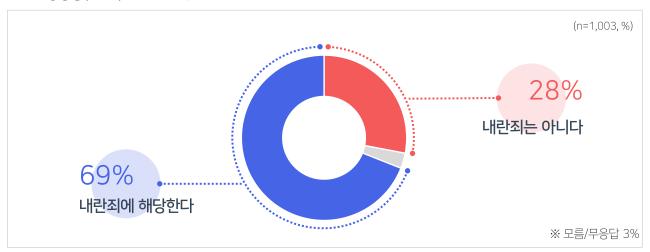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임명해야 한다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3)	60	27	13
	18세-29세	(148)	48	24	27
	30대	(146)	61	26	13
연령	40대	(173)	<u>80</u>	16	5
긴당	50대	(197)	71	22	6
	60대	(178)	51	<u>40</u>	9
	70세 이상	(161)	46	35	20
	서울	(197)	61	29	10
	인천/경기	(330)	61	25	14
	대전/충청(세종)	(102)	55	34	11
지역	광주/전라	(99)	<u>76</u>	11	13
	대구/경북	(91)	44	<u>41</u>	15
	부산/울산/경남	(145)	59	28	13
	강원/제주	(39)	71	17	12
	농/임/수산업	(23)	47	35	18
	자영업	(164)	60	<u>33</u>	7
	블루칼라	(164)	60	27	13
직업	화이트칼라	(284)	<u>71</u>	19	10
	주부	(177)	54	29	17
	학생	(72)	59	18	22
	무직/기타	(119)	47	40	13
	보수	(309)	37	<u>51</u>	12
이념	중도	(356)	65	23	12
성향	진보	(282)	<u>83</u>	9	9
	모름/무응답	(56)	41	14	45

문5

#### 3. 내란죄 관련 의견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다음 두 주장 중 선생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공감하십니까? (보기 1-2 로테이션)

-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비상 계엄령 선포와 이후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에 침입한 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이 69%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으므로 내란죄는 아니다'라는 응답(28%)보다 2배 이상 높음.
  - ☞ 반면, 70세 이상 연령층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46%)'와 '내란죄는 아니다'(48%)가 비슷한 수준임
- ✓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50대 이하(20대 76%, 30대 77%, 40대 86%, 50대 76%), 광주/전라(90%), 강원/제주(80%), 화이트칼라(80%), 학생(77%), 중도 성향층(76%) 및 진보 성향층(96%)에서 특히 높았음.
- ✓ '내란죄는 아니다'는 60대 이상(60대 44%, 70세 이상 48%), 대구/경북(56%), 자영업(35%), 주부(34%), 보수 성향층(61%)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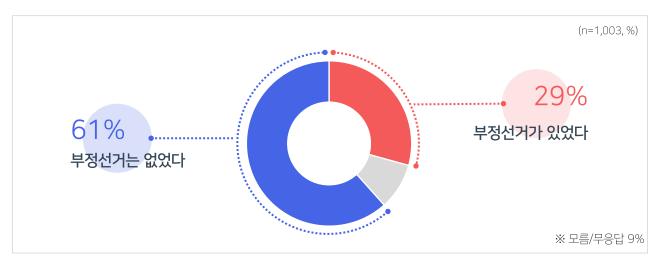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비상 계엄령 선포와 이후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에 침입한 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으므로 내란죄는 아니다	모름/ <del>무응</del> 답
	전체	(1,003)	69	28	3
	18세-29세	(148)	<u>76</u>	21	3
	30대	(146)	<u>77</u>	22	1
연령	40대	(173)	<u>86</u>	14	0
긴장	50대	(197)	<u>76</u>	23	1
	60대	(178)	52	<u>44</u>	5
	70세 이상	(161)	46	<u>48</u>	6
	서울	(197)	69	28	2
	인천/경기	(330)	71	26	3
	대전/충청(세종)	(102)	68	26	6
지역	광주/전라	(99)	<u>90</u>	9	1
	대구/경북	(91)	43	<u>56</u>	1
	부산/울산/경남	(145)	66	31	3
	강원/제주	(39)	<u>80</u>	20	0
	농/임/수산업	(23)	37	54	9
	자영업	(164)	65	<u>35</u>	1
	블루칼라	(164)	72	25	3
직업	화이트칼라	(284)	<u>80</u>	19	1
	주부	(177)	61	<u>34</u>	5
	학생	(72)	<u>77</u>	20	3
	무직/기타	(119)	57	39	4
	보수	(309)	36	<u>61</u>	3
이념	중도	(356)	<u>76</u>	21	3
성향	진보	(282)	<u>96</u>	4	0
	모름/무응답	(56)	74	16	9

문6

#### 4. 부정선거 관련 의견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 선포 이유 중의 하나로 제22대 국회의원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보기 1-2 로테이션)

- 제22대 국회의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61%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 29%보다 높게 나타남.
  - ☞ 반면, 대구/경북 지역은 '부정선거가 있었다'(45%)와 '부정선거는 없없다'(43%)가 비슷한 양상임.
- ✓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40대(78%), 광주/전라(76%), 화이트칼라(72%), 진보 성향층(8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60대 이상(60대 40%, 70세 이상 41%), 대구/경북(45%), 주부(36%), 보수 성향층 (51%)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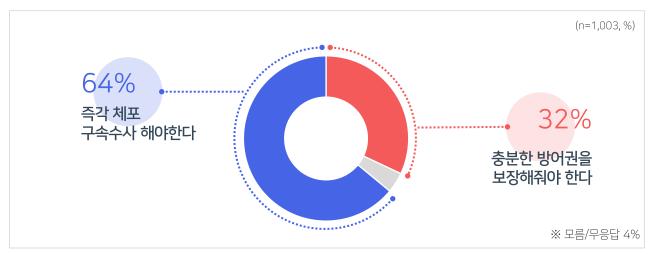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3)	61	29	9
	18세-29세	(148)	57	29	14
	30대	(146)	61	29	10
연령	40대	(173)	<u>78</u>	17	5
긴정	50대	(197)	69	24	7
	60대	(178)	54	<u>40</u>	6
	70세 이상	(161)	44	<u>41</u>	15
	서울	(197)	64	30	6
	인천/경기	(330)	63	29	9
	대전/충청(세종)	(102)	57	30	13
지역	광주/전라	(99)	<u>76</u>	14	10
	대구/경북	(91)	43	<u>45</u>	12
	부산/울산/경남	(145)	59	31	10
	강원/제주	(39)	68	24	7
	농/임/수산업	(23)	36	42	23
	자영업	(164)	60	31	9
	블루칼라	(164)	59	33	8
직업	화이트칼라	(284)	<u>72</u>	20	8
	주부	(177)	58	<u>36</u>	7
	학생	(72)	56	32	12
	무직/기타	(119)	54	34	12
	보수	(309)	40	<u>51</u>	9
이념	중도	(356)	67	23	10
성향	진보	(282)	<u>81</u>	14	5
	모름/무응답	(56)	39	31	30

문7

#### 5. 공수본 역할에 대한 의견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공조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공수처·국방부 조사단)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보기 1-2 로테이션)

-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 구속 수사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64%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응답 32%보다 높음.
- ✓ '즉각 체포 구속수사 해야한다'는 40대(82%), 광주/전라(87%), 화이트칼라(75%), 중도 성향층(68%), 진보 성향층(95%)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60대 이상(60대 48%, 70세 이상 50%), 대구/경북(53%), 자영업(38%), 보수 성향층(65%)에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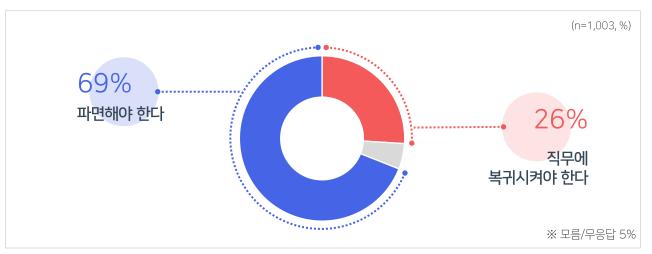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즉각 체포 구속 수사해야 한다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3)	64	32	4
	18세-29세	(148)	65	27	7
	30대	(146)	69	30	2
연령	40대	(173)	<u>82</u>	17	1
인당	50대	(197)	73	26	1
	60대	(178)	49	48	3
	70세 이상	(161)	41	<u>50</u>	9
	서울	(197)	62	34	4
	인천/경기	(330)	64	33	4
	<b>대전/충청</b> (세종)	(102)	65	31	4
지역	광주/전라	(99)	<u>87</u>	12	1
	대구/경북	(91)	39	<u>53</u>	8
	부산/울산/경남	(145)	63	34	3
	강원/제주	(39)	76	20	5
	농/임/수산업	(23)	19	68	12
	자영업	(164)	60	<u>38</u>	2
	블루칼라	(164)	65	32	2
직업	화이트칼라	(284)	<u>75</u>	23	2
	주부	(177)	57	36	6
	학생	(72)	68	24	7
	무직/기타	(119)	53	42	5
	보수	(309)	31	<u>65</u>	4
이념 성향	중도	(356)	<u>68</u>	28	4
성향	진보	(282)	<u>95</u>	5	0
	모름/무응답	(56)	56	27	17

문8

#### 6. 헌재 탄핵 심판 의견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보기 1-2 로테이션)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론으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69%로,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26%)보다 2배 이상 높음.
- ✓ '파면해야 한다'는 50대 이하(20대 77%, 30대 76%, 40대 84%, 50대 76%), 광주/전라(87%), 학생(83%), 진보 성향층(96%)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60대 이상(60대 38%, 70세 이상 49%), 대구/경북(46%), 주부(32%), 보수 성향층 (58%)에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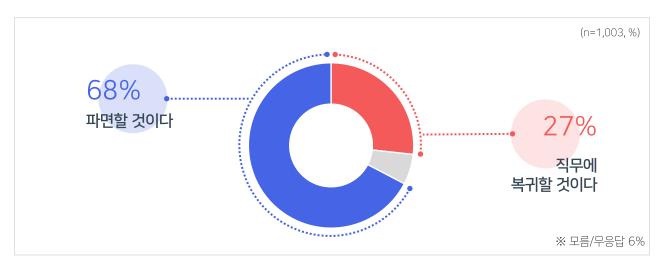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3)	69	26	5	
	18세-29세	(148)	<u>77</u>	16	7	
	30대	(146)	<u>76</u>	20	4	
연령	40대	(173)	<u>84</u>	15	1	
인당	50대	(197)	<u>76</u>	22	2	
	60대	(178)	54	<u>38</u>	8	
	70세 이상	(161)	44	<u>49</u>	7	
	서울	(197)	70	25	5	
	인천/경기	(330)	70	27	3	
	<b>대전/충청</b> (세종)	(102)	71	25	4	
지역	광주/전라	(99)	<u>87</u>	9	4	
	대구/경북	(91)	45	<u>46</u>	9	
	부산/울산/경남	(145)	66	29	6	
	강원/제주	(39)	76	22	2	
	농/임/수산업	(23)	44	47	9	
	자영업	(164)	65	31	5	
	블루칼라	(164)	70	24	6	
직업	화이트칼라	(284)	79	18	3	
	주부	(177)	61	<u>32</u>	6	
	학생	(72)	<u>83</u>	14	3	
	무직/기타	(119)	55	40	5	
	보수	(309)	36	<u>58</u>	6	
이념 성향	중도	(356)	76	19	5	
성향	진보	(282)	<u>96</u>	3	1	
	모름/무응답	(56)	63	21	15	

#### 7. 헌재 탄핵 심판 전망

문9

선생님의 견해와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보기 1-2 로테이션)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예상되는 결론으로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68%로, '탄핵이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할 것이다'는 응답(27%)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탄핵 심판 의견으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92%가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83%가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함.
- ✓ '파면할 것이다'는 50대 이하(20대 69%, 30대 73%, 40대 83%, 50대 76%), 광주/전라(89%), 화이트칼라 (78%)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 '직무에 복귀할 것이다'는 60대 이상(60대 40%, 70세 이상 43%), 대구/경북(49%), 주부(31%)에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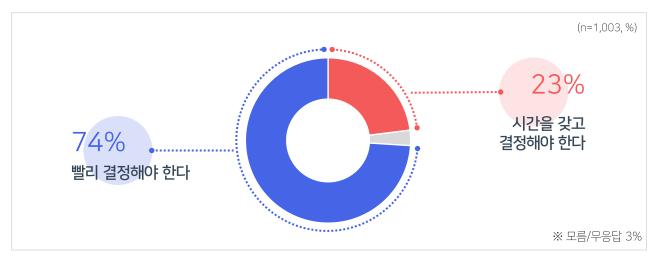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할 것이다	탄핵이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할 것이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3)	68	27	6
	18세-29세	(148)	<u>69</u>	25	5
	30대	(146)	<u>73</u>	21	5
연령	40대	(173)	<u>83</u>	15	2
언닝	50대	(197)	<u>76</u>	19	5
	60대	(178)	55	<u>40</u>	6
	70세 이상	(161)	46	<u>43</u>	11
	서울	(197)	69	25	6
	인천/경기	(330)	69	26	5
	<b>대전/충청</b> (세종)	(102)	66	24	10
지역	광주/전라	(99)	<u>89</u>	11	0
	대구/경북	(91)	43	<u>49</u>	8
	부산/울산/경남	(145)	64	30	6
	강원/제주	(39)	76	24	0
	농/임/수산업	(23)	49	42	9
	자영업	(164)	64	30	6
	블루칼라	(164)	69	25	6
직업	화이트칼라	(284)	<u>78</u>	18	4
	주부	(177)	63	<u>31</u>	6
	학생	(72)	70	28	2
	무직/기타	(119)	53	39	8
탄핵	탄핵 인용해 파면해야	(686)	<u>92</u>	5	3
심판	탄핵 기각돼 복귀시켜야	(268)	12	<u>83</u>	5
의견	모름/무응답	(49)	30	26	45

#### 8. 헌재 심판 일정

문10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약 90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일정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1-2 로테이션)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판결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최종 결정일정 기준과 비교했을 때, '그 때보다 빨리 결정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74%로, '그 때보다 많은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23%) 대비 3배 이상 높음.
  - ☞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 판단됨.
- ✓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40대(89%), 광주/전라(87%), 화이트칼라(82%), 진보성향층(97%)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는 60대(34%), 대구/경북(40%), 주부(29%), 보수 성향층(47%)에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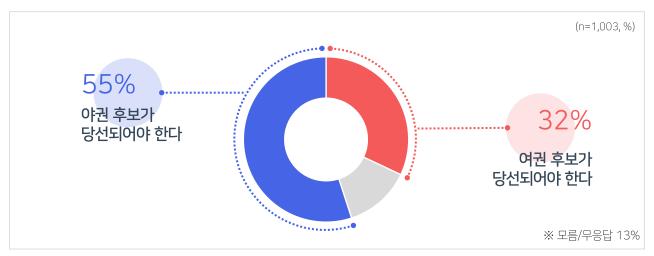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그 때(약 90일)보다 빨리 결정해야 한다	그 때(약 90일)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3)	74	23	3
	18세-29세	(148)	70	26	4
	30대	(146)	81	16	2
연령	40대	(173)	<u>89</u>	11	1
인당	50대	(197)	78	20	2
	60대	(178)	64	<u>34</u>	3
	70세 이상	(161)	62	31	6
	서울	(197)	74	23	2
	인천/경기	(330)	75	23	2
	<b>대전/충청</b> (세종)	(102)	76	19	5
지역	광주/전라	(99)	<u>87</u>	11	2
	대구/경북	(91)	58	<u>40</u>	3
	부산/울산/경남	(145)	72	22	6
	강원/제주	(39)	78	20	2
	농/임/수산업	(23)	47	45	8
	자영업	(164)	76	22	2
	블루칼라	(164)	75	19	6
직업	화이트칼라	(284)	<u>82</u>	16	1
	주부	(177)	69	<u>29</u>	3
	학생	(72)	71	26	3
	무직/기타	(119)	67	30	3
	보수	(309)	48	<u>47</u>	5
이념	중도	(356)	77	21	2
성향	진보	(282)	<u>97</u>	3	1
	모름/무응답	(56)	84	5	11

#### 9. 조기 대선 관련 의견

문11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조기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다음 의견 중 선생님께서는 어디에 더 공감하십니까? (보기 1-2 로테이션)

-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조기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 되어야 한다' 라는 응답이 55%로, '정권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 32%보다 높음.
- ✓ '야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40대(78%), 광주/전라(77%), 화이트칼라(68%), 진보성향층(91%)에서 녹음
- ✓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70세 이상(51%), 대구/경북(52%), 주부(40%), 보수 성향층(68%)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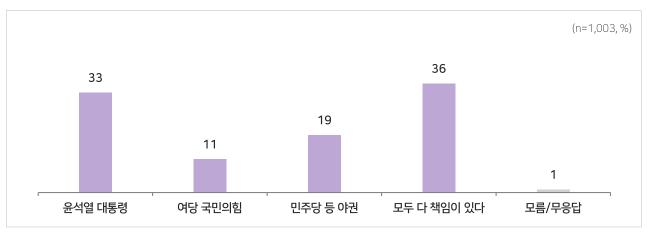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정권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모름/무 <del>응</del> 답
	전체	(1,003)	55	32	13
	18세-29세	(148)	52	31	17
	30대	(146)	60	26	14
연령	40대	(173)	<u>78</u>	17	4
긴당	50대	(197)	68	22	10
	60대	(178)	39	45	16
	70세 이상	(161)	31	<u>51</u>	19
	서울	(197)	53	32	15
	인천/경기	(330)	53	33	14
	대전/충청(세종)	(102)	57	31	12
지역	광주/전라	(99)	<u>77</u>	10	13
	대구/경북	(91)	36	<u>52</u>	12
	부산/울산/경남	(145)	57	31	13
	강원/제주	(39)	68	27	5
	농/임/수산업	(23)	19	61	20
	자영업	(164)	54	32	15
	블루칼라	(164)	57	29	14
직업	화이트칼라	(284)	<u>68</u>	22	10
	주부	(177)	48	<u>40</u>	12
	학생	(72)	55	29	16
	무직/기타	(119)	40	43	17
	보수	(309)	22	<u>68</u>	10
이념	중도	(356)	58	23	19
성향	진보	(282)	<u>91</u>	6	3
	모름/무응답	(56)	32	18	50

#### 10. 정치경제적 위기 관련 평가

**문12** 선생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경제적 위기의 책임이 다음 중 누구에게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보기 1-4 로테이션 )

- 현재 우리나라 정치경제적 위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가장 큰지에 대해 '모두 다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36%,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응답이 33%로 높게 나타남.
- 뒤를 이어 '민주당 등 야권' 19%, '여당 국민의힘' 11% 순임(모름/무응답 1%).
- ✓ '모두 다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30대 이하(20대 54%, 30대 45%), 강원/제주(45%), 학생(56%), 보수 및 중도 성향층(각 4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응답은 40대(44%), 50대(45%), 광주/전라(44%), 화이트칼라(38%), 진보 성향층 (54%)에서 비교적 높았음.
- ✓ '민주당 등 야권'이라는 응답은 60대 이상(60대 35%, 70세 이상 34%), 대구/경북(37%), 자영업 및 주부 (각 25%), 보수 성향층(41%)에서 특히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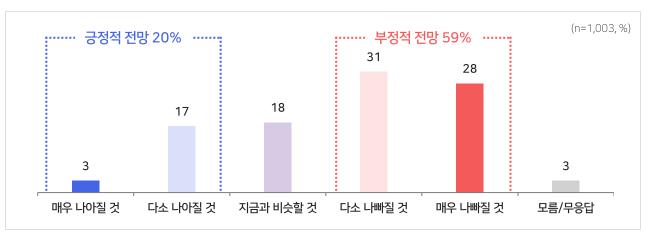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윤석열 대통령	여당 국민의힘	민주당 등 야권	모두 다 책임이 있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3)	33	11	19	36	1
	18세-29세	(148)	24	10	9	<u>54</u>	4
	30대	(146)	26	14	14	<u>45</u>	1
연령	40대	(173)	<u>44</u>	16	9	30	1
긴경	50대	(197)	<u>45</u>	11	14	30	1
	60대	(178)	28	8	<u>35</u>	28	1
	70세 이상	(161)	25	5	<u>34</u>	34	2
	서울	(197)	32	11	20	36	1
	인천/경기	(330)	37	8	18	37	1
	대전/충청(세종)	(102)	29	18	17	34	3
지역	광주/전라	(99)	<u>44</u>	12	6	36	2
	대구/경북	(91)	16	8	<u>37</u>	36	3
	부산/울산/경남	(145)	30	12	20	35	2
	강원/제주	(39)	28	15	12	<u>45</u>	0
	농/임/수산업	(23)	15	0	40	41	5
	자영업	(164)	34	11	<u>25</u>	29	0
	블루칼라	(164)	31	10	16	40	3
직업	화이트칼라	(284)	<u>38</u>	14	11	37	1
	주부	(177)	31	8	<u>25</u>	35	1
	학생	(72)	29	7	6	<u>56</u>	3
	무직/기타	(119)	29	12	27	29	3
	보수	(309)	12	5	<u>41</u>	<u>41</u>	1
이념	중도	(356)	33	10	15	<u>41</u>	1
성향		(282)	<u>54</u>	18	3	25	1
	모름/무응답	(56)	29	7	10	44	10

#### 11. 내년 경제 전망

문13 선생님께서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나빠질 것으로 보십니까?

- 2025년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해 '나빠질 것이다'(매우+다소)는 부정적 전망은 59%로 나타나, '나아질 것이다'(매우+다소)는 긍정적 전망(20%) 대비 39%p 높았음.
- 한편,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응답은 18%임(모름/무응답 3%).
  - ✓ '부정적 전망'은 30대(63%), 40대(64%), 서울(64%), 인천/경기(63%), 화이트칼라 및 학생(각 63%), 중도 성향층(63%) 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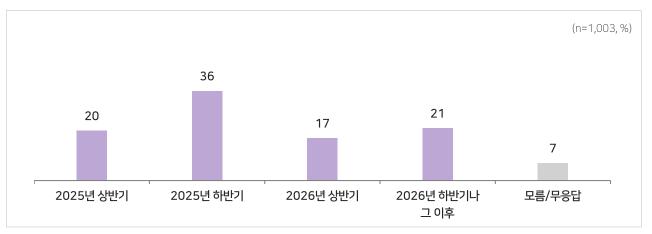


			매우	다소 지금과	지그라	다소 매우	매으	종합평가			
	구분	사례수	나아질 것	나아질 것	비슷할 것	나빠질 것		긍정적 전망	지금과 비슷	부정적 전망	모름 /무응답
	전체	(1,003)	3	17	18	31	28	20	18	59	3
	18세-29세	(148)	1	11	26	43	16	12	26	59	3
	30대	(146)	4	12	20	37	26	17	20	<u>63</u>	1
연령	40대	(173)	3	19	13	30	33	22	13	<u>64</u>	1
7.9	50대	(197)	3	21	14	23	36	24	14	59	3
	60대	(178)	2	18	17	33	28	21	17	61	2
	70세 이상	(161)	2	20	19	25	24	23	19	49	10
	서울	(197)	4	14	17	32	32	18	17	<u>64</u>	2
	인천/경기	(330)	2	15	17	34	29	17	17	<u>63</u>	3
	대전/충청(세종)	(102)	1	22	14	39	22	23	14	61	2
지역	광주/전라	(99)	2	20	24	25	25	22	24	50	4
	대구/경북	(91)	4	18	11	34	26	22	11	61	6
	부산/울산/경남	(145)	2	22	19	27	26	24	19	53	4
	강원/제주	(39)	7	15	35	12	28	22	35	40	2
	농/임/수산업	(23)	0	21	16	46	12	21	16	58	5
	자영업	(164)	6	20	19	21	31	26	19	52	3
	블루칼라	(164)	2	15	21	32	28	17	21	60	2
직업	화이트칼라	(284)	4	16	15	32	31	20	15	<u>63</u>	1
	주부	(177)	2	17	17	30	30	19	17	60	4
	학생	(72)	0	15	19	44	19	15	19	<u>63</u>	3
	무직/기타	(119)	1	19	18	34	18	19	18	53	10
	보수	(309)	4	16	20	30	28	20	20	57	3
이념	중도	(356)	2	17	18	35	28	19	18	<u>63</u>	1
성힝	진보	(282)	3	19	15	31	29	22	15	60	4
	모름/무응답	(56)	2	13	21	24	21	15	21	45	19

#### 12. 경제 회복 시기

**문14** 선생님께서는 대통령 탄핵 사태가 미치는 영향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시기를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 대통령 탄핵 사태가 미치는 영향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시기에 대해 물어본 결과, '2025년 하반기'라는 응답이 3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26년 하반기나 그 이후' 21%, '2025년 상반기' 20%, '2026년 상반기' 17% 순임.
- √ '2025년 하반기'는 40대(46%), 60대(42%), 강원/제주(46%), 화이트칼라(39%), 중도 성향층(39%)에서 높음.
- ✓ '2026년 하반기나 그 이후'는 2030세대(20대 33%, 30대 35%), 인천/경기(24%), 학생(31%)에서 비교적 높았음.



	구분	사례수	2025년 상반기	2025년 하반기	2026년 상반기	2026년 하반기나 그 이후	모름/무응답
	전체	(1,003)	20	36	17	21	7
	18세-29세	(148)	14	26	21	<u>33</u>	6
	30대	(146)	11	28	21	<u>35</u>	5
೧೨೯	40대	(173)	16	<u>46</u>	18	19	2
연령	50대	(197)	23	39	21	13	4
	60대	(178)	23	<u>42</u>	14	15	6
	70세 이상	(161)	30	29	9	13	19
	서울	(197)	18	33	21	21	6
	인천/경기	(330)	18	36	17	<u>24</u>	5
	대전/충청(세종)	(102)	24	38	11	20	8
지역	광주/전라	(99)	20	39	20	15	6
	대구/경북	(91)	25	29	21	15	11
	부산/울산/경남	(145)	21	34	15	21	9
	강원/제주	(39)	12	<u>46</u>	15	22	5
	농/임/수산업	(23)	29	35	9	14	13
	자영업	(164)	23	35	16	19	6
	블루칼라	(164)	18	33	20	23	5
직업	화이트칼라	(284)	15	<u>39</u>	20	25	3
	주부	(177)	24	36	13	14	13
	학생	(72)	19	26	20	<u>31</u>	4
	무직/기타	(119)	22	37	17	14	10
	보수	(309)	27	33	13	19	8
이념	중도	(356)	14	<u>39</u>	18	23	6
성향	진보	(282)	18	37	22	21	2
	모름/무응답	(56)	21	24	11	16	27

#### 2025년 신년 특집 정치·사회현안 여론조사

연구기관 (취)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발행명 MBC 2025년 신년 특집 정치·사회 여론조사

**발행일** 2024년 12월 31일

**발행처** (취)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18, 석오빌딩

TEL: 02-3415-5100

<비매품>

